맷집 키우는 대신 매를 맞지 말자

(여호수아 9:1~27)

1.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3.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맷집 키우는 대신 매를 맞지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맷집 키우는 대신 매를 맞지 말자'

맷집은 매를 맞을 때 잘 견디는 힘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때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얻어맞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리는 훈련을 하지만, 맞을 때에 상대방의 주먹이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복부 같은 곳은 웬만큼 맞아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종합 격투기 선수처럼 살아갑니다. 날마다 두들겨 맞으며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 되다보니, 철학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인생의 불안과 근심걱정과 부조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매 맞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해놓고 맷집을 키우며 살지 않아도 되고 아예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삶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서 살자는 것인데, 맷집을 키우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매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주어져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특별히 선민들이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후에 잘못 했을 때에 아버지로서 매를 가하십니다. 히 12: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하십니다. 자녀로 생각하시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매를 안 맞는 길을 안다면 그 길을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매를 때리는 하나님도 즐겁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가 주어지고 매의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로 내가 매를 맞을 때에는 어떻게 매를 맞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환경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가족들 중에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하는 일이 어긋나 버렸을 때에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차꼬에 채워져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입니까?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저주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 밖으로 나갈 때에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내용을 몽둥이 삼아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우리 마음의 불안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같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평강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불안해졌다면 돈을 믿는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는데 평강 대신 불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서 도무지 답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젊은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또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또 외국으로 나갑니다. 애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 때에 엄마에게 닥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은 직장일 때문에 간섭할 수 없고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것인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한 것이고, 가라앉아서 우울하기 그지없는데 이게 매입니다. 환경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매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야 되는 상황, 평강이 깨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매를 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까? 앞에서 에발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석회 바른 돌비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돌비를 보면서 석회가 지워지면 율법이 지워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걱정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황이 주어지면 비바람에 석회 바른 돌

비에 쓴 율법이 지워지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유전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을 억누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유전 죄의 영향력이 억제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의 양이 적어질수록 유전 죄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유전 죄의 영향력이 커지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전광석화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에 얼른 '하나님이 인격성을 가지고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내 안에서 판단되고 생각하는 인격 자체를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여야 하는데 죽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판단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유전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면 이제 매가 임하게 되어서 삶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에게 평강을 마치 쑤셔 넣듯이 넣어주시는데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3: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저주의 내용과 죽어서 받게 될 심판의 모든 저주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인데, 주님은 그 저주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므로 그 생명 값이 남아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게 환경의 상황이 주어지고 대상이 앞에 나타날 때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떠오르는 것이 유전 죄의 영향아래 있는 것이므로, 이 상태는 반드시 죽지 않으면 저주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서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주의 내용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구원의 막대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누리셨던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늘 노래하는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는 복지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봅니다.

이제 길갈에 머무르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찌르고 에발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연관성에 대한 교훈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마음에 확고하게 새겼습니다. 그 길갈 가까이에 히위 족속의 기브온 성이 있고 그 주변에 세 개의 성이 더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성을 합쳐서 기브온은 이 성들의 왕도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큰 성으로, 주변에 있는 히위 족속의 세 성읍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점령한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모든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 일치단결하여 이스라엘을 적대자로 생각해서 저항하려고 준비하는데, 히위 족속

에 속한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지형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멀리서 왔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음식도 곰팡이가 핀 말라빠진 빵조각을 들고, 포도주부대도 다 낡은 것을 들고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당신들의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적대자들의 영역에 들지 않는 아주 멀리서 왔다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살려주게 됩니다. 성경의 문자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속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화 시키지 못했고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아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데, 개개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잡일을 하게 됩니다. 즉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속인 자들에게 23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저주일까 생각이 듭니다. 시84: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이러한 시가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악인의 화려한 장막보다 낫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서 평생 머물며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저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그 주변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에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며 그 유명한 기브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구하게 됩니다. 또한 역대하 1장에 보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뀔 때에 제일 처음에 성전이 설치된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더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서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죽이지 못한다.'고 해서 기브온이 살아났을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그 중에 기브온이 포함된 히위 족속이 들

어갑니다. 하나님은 진멸할 것을 결정하셨고 그 결정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일곱 족속의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시키려는 당신의 뜻을 변개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때문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살길을 찾은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왜 속였느냐"고 따질 때에,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임한 것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정사실화 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만 보았습니다.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에도 아직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셨고,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앗수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망해갈 때의 유다와 북 왕국 사람들보다도 지금의 기브온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2:25절에 라합이 아브라함과 어깨를 견주고, 히11:31절에 모세 다음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환경을 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은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얼른 돌아서서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도, 이 걱정이 자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식으로 내 행복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자식을 믿는 것이므로, 얼른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걱정이고,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 것이라고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과의 전쟁을 생각합니다. 돈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평강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과의 전쟁으로 생각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평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못 된 짓은 병든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기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평생 동안에 가장 깨끗하게 산 기간일 것입니다. 너무 아프게 되면 마음까지도 깨끗해져서 다른 못된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다른 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파 누워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막대기인 이스라엘을 껴안습니다. 건강이 상한 것은 막대기일 뿐이고, 돈이 없는 것은 막대기일 뿐이고, 자식의 문제는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피할 곳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나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괴로우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석회 바른 돌비에 쓴 율법이 비바람에 지워지듯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삶을 끌어오다가 일이 안돼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평강이 깨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십자가이므로 '살려 달라'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 됨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유전 죄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자체를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생기고, 돈 때문에 생기고, 건강 때문에 생기고, 자식 때문에 생기고,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동료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사라질 때마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심판인 매가 왔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래 맞지 마세요. 삼일 동안 고민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울다보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맷집만 길러지는 것입니다. 울기는 왜 웁니까? 빨리 깨닫고 한 대 때리시기 전에, 불안이 찾아오려고 하면 곧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평생 성전에 머물면서 물 긷고 나무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라 자손은 그것이 부럽다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이 주어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치시는 매임을 얼른 깨닫고,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붙잡는 것처럼 그 매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걱정되고 근심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려 달라'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매 맞지 않고 맷집을 키워가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맷집 키우지 않고 매를 안 맞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십자가 붙잡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